

하나님의 왕국 —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4/21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3:3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 15:26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마 16:24-26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눅 9:24-25

24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 니고데모는 상류층의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왕국은 하나의 범위이자 생명의 영역이다. 범위는 권위의 문제이고, 영역은 생명의 문제이다. 어떤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러한 종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려면 반드시 그러한 종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왕국은 영역이다. 사람의 왕국은 사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영역은 생명의 문제이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러한 종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생명이 없으면 그러한 영역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인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5년, 2권, 영문판, 355-356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가복음 4 장 26 절부터 29 절까지에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셨다. 주님은 왕국이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씨는 성숙할 때까지 자란 후 수확된다. 씨가 뿌려진 때부터 수확될 때까지의 기간은 왕국이 자라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확은 왕국이 완전히 출현하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내게 작은 카네이션씨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땅에 심는다고 해 보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연한 싹이 틀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연한 싹이 자라서 결국 궁극적인 완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한 완결은 다른 아닌 카네이션 왕국의 출현일 것이다. 여러 성장 단계에 있는 카네이션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것은 연한 싹이고, 또 어떤 것은 긴 줄기를 내었고, 또 다른 것은 꽃봉오리를 맺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것에서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다. 이렇게 하여 카네이션 왕국이 완전히 나타난다. 그 왕국의 시작은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 발전의 끝은 꽃이 활짝 피는 것, 곧 카네이션의 생명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국이 오게 하시며”(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왕국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왕국은 이미 와 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왕국은 오고 있는 중이다. 앞의 예를 다시 한번 들면, 어떤 의미에서 카네이션 왕국은 이미 씨의 형태로 와 있다. 어느 날 카네이션꽃이 활짝 필 때, 그것은 카네이션 왕국이 완전히 오는 것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와 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이라는 땅에 뿌리신 날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오기 시작했다. 그 성장 과정이 계속 이어져 비로소 완전한 수확의 때가 오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국이란 무엇인가? 왕국은 단순히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시며, 우리 안에서 성숙하시어 수확의 때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이다. 왕국은 단지 어떤 시대나 영역이 아니다.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의 총체이다.

동물의 왕국은 모든 동물의 생명과 그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이다. 새는 날고, 원숭이는 나무를 타며, 거북이는 물속에서 헤엄친다. ...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활동의 총체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최근에 나는 집회에서 지체들의 매우 많은 활동을 바라보고 지켜보며 누렸다. 여러분은 그것이 교회 집회였다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활동들이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기도 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3장, 44-4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6장

4/22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3:5-6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일 5:11-12

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살후 3:16

16 평안의 주님께서 직접 모든 면에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 30:15

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사 32:17

17 의의 일이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가 영원토록 평온과 안전이 되리라.

요한복음 3 장 3 절과 5 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것은 들어가야 할 신성한 영역, 즉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영역이다. 오직

신성한 생명만이 신성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왕국은 항상 생명과 관련된다. ...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4-1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일 뿐 아니라, 신성한 영역 또는 신성한 범위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곧 우리를 신성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신성한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듭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선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해도, 그것은 신성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신성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요구를 충족한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성한 일들을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신성한 왕국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입구이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왕국안으로 태어났다. 어느 누구도 귀화하여

사람의 왕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는 태어날 때 즉시 개의 왕국 안에 있게 된다. 개는 개가 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안다. 누군가가 개에게 “작은 개야, 너는 개이고, 개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매일 짖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개가 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개는 개의 왕국 안에 있으며, 나면서부터 개가 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안다. 이 때문에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배우거나 귀화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로 귀화하여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귀화하여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골로새서 1 장 13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신성한 영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왕국에 대한 것을 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다.

많은 젊은이가 내게 와서 담배 피우는 것, 영화 보는 것, 먹는 것, 옷 입는 것, 결혼하는 것 등에 관해 질문한다. ... 어떤 젊은이가 그런 질문거리를 갖고 나에게 올 때마다 나는 질문한 그에게 도리어 질문하며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 없는지를 왜 나에게 묻습니까? 형제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려고 와서는 안 됩니다. ... 나에게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형제님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 나는 조금 더 나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알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5-1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 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3 장; 직장인 성도들을 위하여, 3 장

4/2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 6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5:1-2, 17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8:10-11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빌 2:13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 26:3

3 ‘주님께서 마음 한결같은 이를 온전한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시게 됨은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 장 6 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8 장 2 절은 생명의 영의 법에 관해 말하고, 11 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에 대해 말한다. ... 에베소서 4 장 18 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어서 19 절은 그들을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8 장 10 절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믿는 이들 안에 기록하신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2 장 27 절은 모든 것에 관하여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기름바름에 대해 말한다. 요한복음 15 장 4 절과 5 절은 주님과 우리의 상호

거함에 대해 말하며, 빌립보서 2 장 13 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 신약 전체에서 '생명의 감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절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의 감각은 위에서 인용된 모든 절에서 충분히 암시되고 언급되어 있다.(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1 장, 1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부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 곧 일종의 부정적인 느낌이다. ... 로마서 8 장 6 절이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은 전적으로 감각과 관련된 말씀이다. ...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는 죽음을 감지한다. 우리는 죽음이 그곳에 있음을 느낀다.

죽음의 느낌은 부정적인 면에서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침체, 메마름, 어둠, 괴로움 등의 내적인 느낌이다(롬 8:6 상). 우리가 약하고 공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메마르고 어둡고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 이것은 죽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죽음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육체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에 생각을 두는 것은 단순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은 우리 매일의 행함의 열쇠이다. 열쇠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다.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을 여는 것과 육체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죽음이 와 있음을 감지할 때, 우리는 자신이 육체 안에서 살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감각의 기능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항목들, 곧 강함,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 있음, 적셔짐, 밝음, 위로 등에 대한 의식을 주기 위해 작용한다(롬 8:6 하).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공허함 대신 만족이 있다. 불편함과 불안함 대신 평안과 안식을 갖는다. 침체 대신 해방감을 가지며 생기가 있게 된다. ... 우리는 메마름이 아닌 적셔짐의 느낌을, 어둠이 아닌 밝은 느낌을, 괴로움이 아닌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명의 감각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느낌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느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감각이 작용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로마서 8 장 6 절에 암시된 주요 항목은 생명의 감각이다.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느낌과 의식의 문제이다. 이 의식이 생명의 감각이다. 그것이 작용할 때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시한다. 죽음의 느낌과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생명의 감각이 의미하는 두 방면이다.

에베소서 4 장 19 절은 믿지 않는 이들을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감각'은 주로 사람의 양심의 의식을 가리킨다. ... 자신의 내적인 느낌에 대해 가장 부주의한 사람들이 가장 죄악된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믿지 않는 이들은 확실히 자신의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려고 한다. 단지 법이나 경찰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도덕적인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도덕적인 표준은 틀림없이 자신의 양심의 내적인 느낌에 부합할 것이다. 물론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감각은 단지 양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의 감각 곧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에 부합하는 양심의 의식과 관계있다.(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1 장, 146-1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5

4/2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눅 1:79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엢 4:18-19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창 2:9, 16-17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16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후 11:2-3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요 14:27

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드립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요 16:33

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든 그들은 오직 사람의 양심만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양심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크게 손상되었다. ... 그들의 손상된 양심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심이 잘 작동한다 해도 그들이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창조된 양심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양심이 있다. 우리 영의 일부인 양심(롬 9:1, 비교 8:16)은 우리 영의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다. 이 새롭게 된 양심에 더하여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위대한 항목들,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법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의 창조된 양심과, 신성한 생명인 삼일 하나님께서 거하시시는 믿는 이들의 새롭게 된 양심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생명에 대한 기본공과, 개정판, 11 장, 150-1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느낌을 갖고 있다. 더 높은 생명일수록 느낌이 더 강하다. 신성한 생명은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생명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리한 느낌을 갖는다(비교 엡 4:18-19).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느낌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무디거나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 있고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야 하고 느낌이 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양심을 포함하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이 신성한 생명의 법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은 높고 풍성하며 강하고 예리하다.

만일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감각은 죽음으로 말미암고 전적으로 부정적인 방면과 관련된다. ... 반대로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감각은 생명으로 말미암고 전적으로 긍정적인 방면과 관련된다. 그 때 우리는 모든 긍정적인 항목들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갖게 된다. 생명의 감각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는지를 알게 된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지시한다. ... 우리는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강함,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 있음, 적셔짐, 밝음,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지금

신성한 생명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타고난 생명 안에 사는 것과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좋은 육체는 없다. 그러나 타고난 생명은 때로 좋을 수도 있다. 타고난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대립되고 육체는 영과 대립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감각의 기능에는 두 방면이 있다. 첫 번째 방면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며, 또한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 ... 많은 때 우리는 자신이 육체 안에서 살고 행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육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성한 생명이 아닌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즉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느낀다.

생명의 감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적으로 교통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일종의 교통이 되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체험했고, 생명의 감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참되고 실지적이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

머무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1 장, 148, 151-1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26

4/25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골 3:4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12:26-27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계 22:2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것이 왕국이 오는 것이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실지적이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 판에 박힌 종교적인 문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천구백 년 이상 되풀이해 왔지만, 아직도 왕국은 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는 입지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자라는 것은 왕국이 참되게 오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더 빨리 허락해 드릴수록, 왕국이 오는 것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6장, 80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음이 순수한 것(비교 마 5:8)은 동기의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셔서 비로소 제가 단일한 목표를 가질 뿐 아니라 제온 존재가 당신께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지게 해 주십시오.” ... 우리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에만 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동기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단일하고 단순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하나님 자신께 맞추어져서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를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을 비워 주시고 저의 마음을 순수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을 향한 단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 그럴 때 주 예수님은 즉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 분 자신을 확장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분은 왕국의 씨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자라신다. 그분은 자라실 때 우리 안에서 줄곧 확장되시고 증가하신다. 이것이 바로 왕국이 자라는 것이며, 이것이 왕국이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라고 물으셨다. ...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포도와 무화과가 아니라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 그리스도의 생명은 포도를 맺는 생명이고 무화과를 산출하는 생명이다. ...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포도와 무화과가 생명의 표현으로서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씩 점유하시고 한 부분씩 차례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라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가시와 영경귀를 내지 않고 다만 왕국 생활의 두 가지 표현인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것이다. 포도와 무화과의 용도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다. 이것이 왕국 생활이다. 이것은 외적인 품행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표현, 곧 우리 존재 안에서 확장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내적 존재 안으로 확장되시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올바라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시고 그런 다음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어 우리가 단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왕국이며, 이것이 교회생활의 실재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확장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왕국이 다름 아닌 우리 안으로 확장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활동의 총체임을 더 완전하게 볼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6장, 78-79, 84-8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3 단계, 4 권, 54 과; 위트니스 리 소책자 시리즈, 왕국과 교회, 2 장

4/26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15:1-2, 6-11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하나님의왕국에대한계시는 3 장에있는두절에근거한다. 3 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5 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 왕국을 보려면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물과 그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은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반면에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2 장, 1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3 장에서 참된 추구자였던 니고데모는 ...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2 절).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과 관념을 가진 채로 왔다. ... 그는 자신을 개선하려면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통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나는 것임이 계시되었다.

다시 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다시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영으로 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또 다른 새로운 종(種), 곧 새로운 종류에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 신성한 다스림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신성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이다. 식물의 왕국은 식물 종의 영역이고, 동물의 왕국은 동물 종의 영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사람 종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고, 사람은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요한복음 3 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 종과 더 많이 관련된다.

신성한 영역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리킨다. 창세기 1 장은 각 생물들이 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종류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이 되게 하셨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믿는 이들(요 1:12-13)은 아담보다 더 하나님 종류에 속한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만 있을 뿐 내적인 실재 즉 신성한 생명은 없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실재를 갖고 있으며,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신성한 종의 신성한 영역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들을 낳으신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는다. 염소가 염소를 낳지 않는다면 그들이 낳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지 않으신다면 그분께서 낳으시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속한 종류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들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들이다. 그러나 신학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표현상 우리가 신성한 종에 속한 하나님-사람들,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이 하나님-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할 뿐 아니라(딤후 3:15, 벰전 4:17, 요 14:2)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고전 6:9, 엡 5:5, 벰후 1:11, 계 11:15).(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2 장, 161-1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2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6장, 78-79, 84-85쪽

4/27 주일

아침의 누림

막 1:1-5, 9-11, 14-15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2 신언자 이사야의 글에 “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4 요한이 나아와서 광야에서 침례 주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 유대 온 지역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9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10 물에서 올라오시는 즉시 하늘이 갈라지며,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14 요한이 붙잡혀 간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